

함순(咸淳)의 생애에 대한 고찰

서 주 영*

- I. 머리말
- II. 함순 집안의 起家 내력과 그 계층적 성격
 - 1. 함유일의 일생
 - 2. 함유일·함순 반골설에 대한 부정
- III. 함순의 일생과 죽림교회 성립시기
 - 1. 함순의 일생
 - 2. 죽림교회 성립시기에 관하여
 - 3. 함순의 爲人에 대한 당시의 기록
- IV.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기존의 고려(高麗) 죽림교회(竹林高會)에 대한 연구 가운데 함순(咸淳)의 일생과 그에 대한 평가를 고찰한 것이다. 함순은 고려 명종과 신종 시기의 인물로 고려 죽림교회(竹林高會)에서 활동했으나, 전해지는 자료가 부족하여 그의 생애에 관해서는 잘 알 수 없었다. 그래서 함순은 대체로 이 인로·임춘과 동일한 계층과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함수묘지명(咸修墓誌銘)』으로 알려진 이 고려시대 묘지명은 함순의 묘지명이다. 이 자료를 통해 함순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좀 더 나아간 내용을 고찰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우선 그에게 씌워진 “반골”이라는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 xuzheyoyou@outlook.com

추론을 부정하고, 그의 일생을 『함수모지명』의 내용과 이인로의 『파한집』, 임춘의 『서하집』의 기록과 교차시켜 고찰함으로써, 함순이 죽림과 인연을 맺게된 동력과 죽림의 형성에 끼친 그의 역할을 추론하였다. 그리고 함순에 대한 당시의 기록을 통해 그의 인물상을 그려보았다.

◆ 주제어

함순(咸淳), 죽림고회(竹林高會), 칠현(七賢), 이인로(李仁老), 임춘(林椿)

I. 머리말

함순에 대한 자료는 『고려사·함유일열전』과 함순과 동시대 인물들의 문집인 이인로의 『과한집』, 임춘의 『서하집』,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최자의 『보한집』의 기록과, 『동문선』에 실린 이인로의 시문작품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 문헌에 존재하는 함순에 대한 기록이 매우 소략하고, 또 그의 시문이 따로 전해지지도 않아, 기존의 연구에서 함순에 대한 접근은 위의 자료의 범위 내에서 그를 판단해야 했고, 그 때문에 함순은 이인로·임춘과 같은 고려 구귀족으로 평가되었고, 사회적 성향역시 이들과 같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죽림고회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 논문인 이동환의 논문은 임춘의 『송함순 부익령서(送咸淳赴翼嶺序)』를 인용하여 함순이 “장수가 되면 장수노릇을 할 수 있고, 관리가 되면 관리노릇을 잘 할 수 있는” 재능있는 인물임을 피력하였다.¹⁾ 하지만 그의 정치적·사회적 성향에 대해서는 그의 부친인 함유일이 명학소 망이의 붕기에 연루되어 삭직된 것을 통해 “무인집권시까지 벼슬은 했지만 역시 반골적인 존재였다”는 것으로 함순의 성향을 반친(返襯)하므로써, 함순이 이인로나 임춘과 같은 부류의 인물임을 암시하였다.²⁾

이중은의 논문은 사상적인 측면에서 위진 죽림칠현과 죽림고회를 비교했는데, 죽림고회가 지향하는 사상이 도교이며, 구성원들을 죽림으로 몰아넣은 사회적 힘을 무신란에 의한 전제폭압적 분위기라고 규정하면서, 죽림의 정신을 “명철보신”과 “傲世之志”로 설명했다.³⁾ 그는 “칠현각론”에서 함순에 대한 장을 따로 두고 함순에 대하여 “최충헌 정권 아래에서 그의 문명은 상당

1) 『西河集』卷5, 「送咸淳赴翼嶺序」, “為將而將, 為吏而吏.”

2) 李東煥, 『高麗 竹林高會 研究 : 傳記의 考察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8, 80-82쪽 참조.

3) 논문에서 고려의 칠현 활동을 위진 칠현의 “명철보신”과 연결시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위진의 칠현은 대장원의 지주계급으로 생계걱정은 없었지만, 고려의 칠현은 무신정권에 의해 토지를 빼앗긴 상태였고, 중앙진출에 생계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 것” 것이라 평하고, 그의 인품에 대한 서술도 하였으나, 함순의 성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 판단을 보류했다.⁴⁾

여운필은 『임춘의 생애에 대한 재검토』에서 짧은 주석으로 『함수묘지명』을 함순의 것으로 추론했다. 그는 함수가 만년에 순에서 수로 개명하였으며, 함순의 출생시기와 나이를 1147년에서 1203년으로 산정했는데, 본 논문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⁵⁾

허남옥의 논문은 죽림고회를 동일한 가치관과 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구성으로 간주했다. 그는 죽림 회원들이 모두 “옛 문신 귀족층의 후예”로, 가문에 대한 긍지가 상쳐입고, 또 신진사류보다 차등 대우를 받는 것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에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사람들이라고 하고, 함순이 “건국 공신 함규의 6세손”이고, “명종조에 공부상서로 치사한 함유일의 아들”이므로 고려 구 귀족출신이며, 이동환의 논문을 근거로 함순을 반골로 규정했다. 더욱이 함순이 평생 말단의 한직에 머물렀던 원인을 함유일의 전력 때문으로 기술했다.⁶⁾

이상의 논의를 살펴보면 함순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그가 이인로·임춘과 같은 고려 전통적 가문의 후예라는 것이며, 또 하나는 그가 반골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그의 행적에 대해 확실하게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우선 함유일의 일생을 통해 함순의 집안이 이인로나 임춘같은 고려문인의 기반을 가진 집안이 아님을 증명하였다. 또 함순의 『묘지명』을 통해 그의 일생을 정리하고, 이인로와 임춘의 문집과 교차시켜 봄으로써 그의 일생을 좀 더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그가 사회불만적 인물유형으로 변형되었던 이유를 추론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기록을 토대로 그의 인물상을 구성해 보았다.

4) 이종은, 「竹林七賢과 竹高七賢의 대비적 고찰」, 『도교문화연구』 4, 1990, 46-47쪽.

5) 여운필, 「임춘의 생애에 대한 재검토」, 『한국한시연구』 4, 1996, 219쪽 49번 주석.

6) 허남옥, 「죽림고회(竹林高會)의 시학(詩學) 연구(研究)」, 『한문고전연구』 13, 2006, 147쪽, 148쪽, 151쪽.

II. 함순 집안의 起家 내력과 그 계층적 성격

함순에 대한 오해중 한 가지는 그의 집안이 고려의 구귀족집안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었는데 경인의 난 때문에 몰락했다는 것이다.⁷⁾ 이것은 함순을 반골로 규정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된다.⁸⁾ 하지만 『고려사』와 『함유일묘지명』을 통해 그의 집안을 살펴보면, 그의 집안을 이인로나 임춘같은 고려의 명문세족(名門世族)으로 규정할 수가 없다. 우선 함유일의 일생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 해당 문제를 논의해 보겠다.

1. 함유일의 일생

『고려사』에서는 함수의 6대조 함규(咸規)가 태조의 개국공신 광평시랑(廣評侍郎)을 지냈다고 하였다.⁹⁾ 그러나 조부 함덕후(咸德侯)에 이르러서 궁중의 의복을 담당하는 하급관리인 상의봉어(尙衣奉御)의 동정(同正)이었을 뿐이다. 게다가 함덕후(咸德侯) 부부는 부친인 함유일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함유일은 외삼촌 집에서 궁핍하게 생활하게 된다.¹⁰⁾

함유일의 인생은 15세(1120) 때 개경으로 상경하여 아버지 친구 이준양(李俊陽)의 도움으로 이부기관(吏部記官)이 되면서부터 바뀐다. 말단직으로 시작했지만, 인종 13년(1135) 묘청(妙淸)의 난때 서리(胥吏)로 종군하면서 임무에 매우 성실하고 청렴하다는 명성을 얻어 인종으로 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리하여 종군의 공으로 서경유수녹사(西京留守錄事)가 되었다. 이때 부유사(副留守) 권적(權適)과 인연을 맺고, 36세(1121) 때 권적이 하상존호사(賀上尊號使)로 금국에 갈 때 동행했다. 이후 추밀원사(樞密院使) 왕충(王冲)이 인종(仁宗)에게 추천하여 내시령(內侍令)이 되었고, 보성군판관(寶城郡判

7) 허남욱, 「죽림고회(竹林高會)의 시학(詩學) 연구(研究)」, 148-149쪽.

8) 李東歡, 「高麗竹林高會研究」, 77쪽.

9) 함유일의 세계는 咸規, 咸光信, 咸忠, 咸仁幸, 咸德侯, 咸有一이다.(『咸修墓誌銘』)

10) 『高麗史·咸有一列傳』.

官)이 되었다가, 의종(毅宗) 즉위년(1146)에 내시(內侍)로 복귀하여 명복궁녹사(明福宮錄事)가 된다. 그는 당시 고려 습속과는 달리 무술(巫術)에 거부감을 느껴 배척했고, 이후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유지했다. 이후 황주목판관(黃州牧判官)을 거쳐, 삭방도(朔方道) 감창사(監倉使)가 되었을때 등주신사(登州神祠)에서 서낭신(城隍神)에게 예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되어 파직되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1170년 경인년의 난을 피하는 계기가 되었다. 함유일은 다시 명종(明宗) 즉위년(1171년)에 내시(內侍)가 되었다가 병부낭중(兵部郎中)으로 임명되었고, 예빈소경(禮賓少卿), 형부시랑(刑部侍郎), 상서좌승(尙書佐丞)이 되었다가 명학소 망이의 봉기에 가담했다는 음모에 휘말려 삭직되었다가(1176),¹¹⁾ 오해가 풀린 이후 얼마뒤 다시 공부상서(工部尙書)로 치사해서(1178), 1185년에 80세로 사망하였다.

2. 함유일·함순 반골설에 대한 부정

이동환은 논문에서 함유일이 명학소 망이의 봉기에 연루되어 삭직된 것을 근거로 반골로 규정했다.¹²⁾ 하지만 이것은 함유일의 인생과 철학에 크게 어긋난다.

함유일은 당시 청렴과 성실함으로 대단한 명성을 누렸는데, 위로는 군주로부터 아래로는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그의 명성은 묘청의 난으로 종군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군대에 있는 동안 그는 청렴과 선공후사하는 성실함로 인종을 비롯한 하급 무사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다.¹³⁾

徐兢의 『선화봉사고려도경』의 여러 기록에 따르면 고려는 “事鬼神”의 풍속이 만연했는데,¹⁴⁾ 유독 함유일은 예외로 귀신을 배격하였다. 고려사에는

11) 『高麗史·咸有一列傳』, “中書門下又奏有一罪, 削內侍籍.”

12) 李東歡, 「高麗竹林高會研究」, 81쪽.

13) 『高麗史·咸有一列傳』 참조.

14) 徐兢『宣和奉使高麗圖經』의 「民居」·「藥局」·「祠宇」편 참조.

그가 의중때 교로도감(橋路都監)이 되어 개경의 무당집을 옮기고, 음사(淫祀)를 불태우고, 신상(神像)에 활을 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그가 태운 용수산(龍首山) 신사는 왕명으로 다시 재건되기도 하였으며, 결국 그는 신사에 대한 참배 거부를 이유로 파면되었는데, 이것은 경인년의 살화를 피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더욱 중요한 일은 그의 집이 개경에 있었지만 그가 축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져갈 것이 없었다. 이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고 느껴지게 한 것이 틀림 없다. 명종 즉위 이후 병부낭중으로 있을 때, 무신들도 그의 앞에서 무기를 숨기거나 도망을 치는 등의 자세를 취하였다.¹⁵⁾

함유일의 명성은 문인들 사이에도 알려져 있었다. 임춘의 『송함순부익령서(送咸淳赴翼嶺序)』에 “지금 천자께서도 그대의 집안이 대대로 청백하다 여긴다.”라고 하고,¹⁶⁾ 『방함자진산거(訪咸子真山居)』에서 “가만히 수 무(畝)의 정원을 거닐어보니, 온 천하보다 넓구나(寬於一天下, 優游數畝園)”라고 하여 함유일의 덕을 칭송했다.¹⁷⁾ 그리고 이인로의 시 『제동고자진(題東臯子眞)』에서 “동고(東臯)”는 함유일의 “동쪽 성곽 부근의 집”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고 보인다.¹⁸⁾

함유일은 자신이 난세에서 기적적으로起家하게된 원인을 “근면한 노력”과 “절약”이라는 도덕적 정신에서 찾았다. 함유일은 일찍이 자신의 아들과 아내가 동쪽 성곽 벽지의 집을 옮길 것을 권하는 것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성벽을 등진 궁벽한 곳에 살면서 본래 쌓아둔 것이 없었으므로 난리를 일으킨 병사들에게 약탈당하지 않았으니 시조(市朝) 가까이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재산이 많으면 선행을 하는데 게을러진다. 내가 어려서 고아가 되어 재미로부터의 도움도 없이, 조정에서 근면한 노력과 절약으로 여기에 이

15) 『高麗史·咸有一列傳』, 『咸有一墓誌銘』 참조.

16) 林椿, 『西河集』卷5, 「送咸淳赴翼嶺序」, “今天子以君家世清白.”

17) 林椿, 『西河集』卷1, 「訪咸子真山居」.

18) 『東文選』卷20.

르렀다. 너희들은 다만 마땅히 정직을 마음으로 삼아 검소함으로 자신을 바로 잡을 뿐이다.¹⁹⁾

이상을 통해 보면, 함유일은 “근검하게 절의를 지킬” 뿐 가난을 걱정하지 않는다. 또 그는 이것을 통해 자신이 현재의 기가와 명성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관은 불만족스러운 현실에 불만을 주변에 표현하고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근면과 청렴이란 도덕적 행위로써 현실을 대하고 순응하며 적응하려는 인생관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를 반골로 규정한 것과 모순이 생긴다. 게다가 함유일 삭직 사건은 함유일이 무고를 당한 것임이 금방 밝혀졌고, 고려 조정은 그를 공부상서(工部尚書)로 치사하도록 하여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²⁰⁾

함유일의 일생을 보면 허남옥의 논문에서 죽림회 인원을 모두 “구문신 귀족층이었다”라고 규정한 것도 사실과 맞지 않다. 함수의 집안은 본래 조부 시대에 몰락한 상태였다. 또 그는 경인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 망이의 봉기에 연루되어 삭직된 상황이었다. “산 동쪽에 살던 관리들이 땅을 쓸어내듯 거의 다 죽었던” 시기에는 “성벽을 등진 궁벽한 곳에 살면서 본래 쌓아둔 것이 없었으므로 난리를 일으킨 병사들에게 약탈당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²¹⁾ 무신의 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리고 이상의 이유 때문에 무인들로부터 경외받게 되었고, 명종시기에도 여전히 존경받는 중앙 관료가 될 수 있었으므로, “신진사류보다 차등 대우를 받았다”는 것도 옳지 않다. 더욱이 함유일의 『묘지명』에서 함유일이 “『서전(書傳)』을 읽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였으므로,²²⁾ 그는 더욱 “문신”이 될 수 없다.

이상을 통해 볼때, 함순에게 이인로나 임춘과 같은 전통문인으로서의 자부

19) 『咸有一墓誌銘』, 公答曰: “以其負郭窮卷, 本无資儲, 不為亂兵所掠. 安用近于市朝? 且多財則怠于為善. 予少孤露, 无蚍蜉蟻子之援, 于朝勤瘁守節以至於此. 汝等但當正直為心, 節儉約己而已.”

20) 『高麗史·咸有一列傳』.

21) 『咸修墓誌銘』.

22) 『咸修墓誌銘』, “公…未嘗讀『書傳』.”

심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인의 난으로 집안이 망한 적이 없으므로 그가 가졌던 불만이 이인로와 임춘과 동일한 원인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

III. 함순의 일생과 죽림교회 성립시기

함순의 일대기는 거의 조사된 적이 없다. 아래에서는 함순의 일대기를 『함수묘지명』과 이인로의 『파한집』, 임춘의 『서하집』에 나오는 작품을 연계시켜 구성해 보고, 이것을 토대로 그가 어떻게 사회적 불만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추론해 보았다.

1. 함순의 일생

함순의 자(字)는 자진(子真)이고, 태어난 곳은 향양현(恒陽縣)으로, 고려때는 양근현(楊根縣)이라고도 했는데, 지금의 경기도 양천(陽川)이다.²³⁾ 그는 함유일의 후처 신씨(申氏)가 낳은 둘째 아들로, 함유일의 세 아들 가운데 막내다.²⁴⁾

함순은 『고려사(高麗史)』에 열전이 없지만 고려의 묘지명 가운데 『함수묘지명(咸修墓誌銘)』을 그의 묘지명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함수묘지명』에는 함순의 이름과 관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공의 휘는 수(修)이고, 자는 자진(子真)이며, 향양(恒陽) 사람으로, 상서(尚書) 함유일의 아들이다.²⁵⁾

23) 『高麗史·地理』楊廣道·光州牧·楊根縣 조목의 주석: “一云恒陽”.

24) 『咸修墓誌銘』.

25) 『咸修墓誌銘』, “公諱修, 字子真, 恒陽人也. 尚書有一之子也.”

이름을 “수(修)”라고 했지만,²⁶⁾ 부친이 함유일이고, 자가 자진(子真)인 인물은 함순밖에 없다. 또 『묘지명』에 함수가 과거 급제 이후 익령현위(翼嶺縣尉)로 부임했다고 했는데,²⁷⁾ 임춘의 『서하집(西河集)』에 「송함순부익령서(送咸淳赴翼嶺序)」가 있으므로,²⁸⁾ 함수가 함순임은 분명하다.

『묘지명』에서 이 비문이 태안(泰安) 3년(1211)에 기록된 것이라고 하고,²⁹⁾ 또 함순을 57세로 천수사(天壽寺) 북산(北山) 기슭에 장사지냈다고 하였다.³⁰⁾ 이를 토대로 함순의 생졸 년대를 계산하면, 그는 1155년(의종10년)에 태어나서 1211년(희종7년)에 죽었다.³¹⁾ 따라서 이인로(1152-1220)보다 4살 어리고, 오세재(1133-1195이전)보다 23살 어리며, 조통(1143-1206이후?)보다 13살이 적다.

임춘의 『송함순부익령서』에서 함순에게 “어찌 ‘庭闈’를 걱정하는가?”³²⁾ 라고 하였기 때문에,³³⁾ 익령으로 부임 받아가기 전 까지 부친과 함께 개경성의 도심이 아닌 동쪽 성곽에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어려서 공부하기를 좋아했고, 이담지와 같이 문헌공도에서 글을 배웠다.³⁴⁾ 『묘지명』에서 진사에 병과(丙科)로 합격했고 하는데,³⁵⁾ 『이규보연보』에 이규보가 15세(1182)의 나이로 함순을 만났을 때 선달(先達)이란 호칭을 사용했으므로,³⁶⁾ 함순은 28세 때 과거에 급제한 상태로 보직을 기다리고 있

26) 여운필은 함순이 修로 개명했다고 주장했다. 여운필, 「임춘의 생애에 대한 재검토」, 219쪽 49번 주석.

27) 『咸修墓誌銘』, “例補翼嶺縣尉.”

28) 林椿, 『西河集』卷5, 「送咸淳赴翼嶺序」.

29) 『咸修墓誌銘』, “時泰安三年二月日也.”

30) 『咸修墓誌銘』, “殯年五十七, 今月二十九日, 葬於天壽北山之麓.”

31) 여운필은 논문에서 함순의 출생과 사망을 1147년에서 1203으로 하였지만, 그 근거를 논문에 기술하지 않았다.

32) 林椿, 『西河集』卷5, 「送咸淳赴翼嶺序」, “何眷戀庭闈?”

33) 『文選·東哲·補亡詩』, “眷戀庭闈, 心不遑安. 李善注: 庭闈, 親之所居.”

34) 『李奎報年譜』, “壬寅大定二十二年公年十五, …, 先達咸淳等皆歎賞不已.”

35) 『高麗史·咸有一列傳』, “淳, 登第.” 『咸有一墓誌銘』, “以文章登進士第.” 『咸修墓誌銘』: “小好學, 登丙第.”

36) 『李奎報年譜』, “大定二十一年, …先達咸淳等皆歎賞不已.”

있음을 알 수 있다.

함순은 진사에 합격 동년에 익령(冀嶺, 강원도 양양) 현위(縣尉)로 발령받았다.³⁷⁾ 함유일은 1185년 작고했는데, 『함순묘지명』에서 함순이 익령현위의 임기를 “완전히 마치고 돌아왔다(及瓜)”라고 하였으니, 부친의 작고로 인해 임기의 방해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또 『함유일묘지명』에서 함유일이 죽었을 때, 함순이 상식직장동정(尙食直長同正)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미 현위 직을 마친 상태로 볼 수 있다. 현위의 임기는 3년이므로 늦어도 1185년 3년 전인 1182년에는 익령으로 부임해 갔어야 한다. 위에서 이규보가 함순을 1182년에 선달(先達)이라고 불으므로, 그는 진사 병과 급제이후 즉시 익령현위가 되었다. 마침 개경으로 복귀하여있던 임춘은 함순의 전별자리에서 『송함순부익령서(送咸淳赴冀嶺序)』를 써주었다.³⁸⁾ 또 이인로도 본래 함순을 전별하려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파한집』에서 “항양의 자진이 관동(關東)에 지방관으로 부임하였는데, … 그러나 길이 막혀 글을 전하지 못하였다.”고 했는데,³⁹⁾ “익령”은 강원도 양양이므로 바로 관동지역이다. 『파한집』의 “길이 막혔다”는 표현은 그가 1182년에 장인 최영유와 함께 하정사의 신분으로 금나라 사신으로 갔던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인로는 이해에 함순을 회롱하는 이인로의 시 『친구가 부인의 땀박을 받아 접을 소와 바꾸었다(聞友人爲郡君所迫, 以妾換牛)』라는 시를 보여줄 수 없었다.

1185년 함순은 처음에 상서직장동정(尙食直長同正)이 되었다.⁴⁰⁾ 상서국(尙食局)에서 유명무실한 직장(直長)으로 있는 그를 안타까워하던 그의 진신 선생(縉紳先生) 동료들이 서로 글을 올려 추천하여 결국 동궁의 사무직인 첨사부녹사(詹事府錄事)가 되었다. 하지만 곧 공역서승(供驛署丞) 겸 동문원녹사(同文院錄事)가 되어,⁴¹⁾ 역마 관리와 문서관리를 하는 중8품의 하급 관료

37) 『咸修墓誌銘』, “小好學, 登丙第, 例補冀嶺縣尉.”

38) 임춘은 1182년에 완전히 개경에 복귀했었다. 여운필, 『임춘의 생애에 대한 재검토』, 228-233쪽 참조.

39) 李仁老, 『破閑集』卷上, “湖上鶯飛杳不還, 江臯佩冷欲尋難, 園桃巷柳今何在, 只有欄邊黑牧丹.”

40) 『咸有一墓誌銘』.

로 밀려났다. 그 이유는 이규보의 「차운함자진배우군판관유작(次韻咸子真拜右軍判官有作)」시의 주석에 보인다. “공(公)이 성량(省郎)에 제수되었다가 친협(親嫌)으로 행공(行公)하지 못하고 예부(禮部)에 임명되었으므로 말한 것이다.”⁴²⁾라고 하였다. 즉 그는 친협의 이유로 하급 관료로 밀려나 버렸다.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의하면 1199년 최충헌은 말단직을 전전하던 함순을 이인로, 이규보, 이담지와 함께 불러 천엽유화에 대한 시를 지어보도록 시켰다. 『묘지명』에

지금의 임금이 동궁(東宮)으로 있을 때, 공이 금문(禁林, 同文院)에서 훌륭한 명망이 있었으므로 첨사부주부(詹事府注簿)로 선발되었고, 주부(注簿)에서 사직(司直)에 오르고, 사직(司直)에서 승(丞)에 올랐다.⁴³⁾

라고 했다. 묘지명에서 “지금의 임금”이라 한 것은 “고려 희종(熙宗)”이다. 『함수묘지명』의 기록 시기는 “태안(泰安) 3년(1211)”이며, “태안”은 고려 희종(熙宗)의 연호다. 희종이 동궁으로 책봉된 시기는 1200년이므로,⁴⁴⁾ 함순은 46세에서 50세 사이에 첨사부로 보직을 옮겨 주부(注簿)가 되었다. 이 시기 인사권을 좌우 한 것은 최충헌이므로, 1199년 최충헌 집에서 지었던 함순의 시가 최충헌을 어느 정도 만족시켰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후 그는 곧 사직·승으로 진급했다.⁴⁵⁾ 그리고 이 시

41) 『咸修墓誌銘』, “縉紳先生交章荐鶻, 擢爲詹事府錄事.”

42) 李奎報, 『東國李相國集』第13卷, 「次韻咸子真拜右軍判官有作」 “自註, 公拜省郎, 以親嫌未出, 改禮部, 故云.” 이규보의 시를 보면 함순이 “右軍判官”이 되었다고 하여 『묘지명』과 차이가 있다.

43) 『咸修墓誌銘』, “今上在東宮, 公以禁林雅望, 選爲詹事府注簿, 自注簿遷司直, 自司直遷爲丞.”

44) 『高麗史·世家』, 신종(神宗) 3년 4월 조, “庚子, 冊元子惠爲王太子.”

45)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서 이규보는 함순과 같이 시를 지었다는 것을 기록했는데, 함께 있던 함순을 사직(司直)으로 칭하였던 것은 이상의 추론 기간과 몇 년의 차이가 있다.(李奎報, 『東國李相國集』第9卷, “己未五月日, 知奏事崔公宅, 後爲晉康公. 千葉榴花盛開, 世所罕見. …, 咸司直淳及予.”)

기 즈음 함순은 홍도정리(紅桃井里)에 있는 이인로 옆집으로 이사를 했고, 자신도 까맣게 잊고있던 과거의 헤프닝을 이인로의 시를 통해 보게된다.⁴⁶⁾ 또 1204년에 이인로가 맹성(猛城)의 수(守)로 나가 있는 동안 이인로의 아들이 진동(珍洞)에 부임했는데, 이담지와 함께 아들 함범랑(咸梵郎)을 대동하고 전별했다.⁴⁷⁾

1205년 희종이 즉위한 이후 그는 예부낭중(禮部郎中) 지제고(知制誥)가 되었고, 다시 권지합문지후(權知合門祗候), 감찰어사(監察御史), 고공원의외랑(考功員外郎)을 역임하였고,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로써 춘주도(春州道) 염안사(廉按使)가 되었다.⁴⁸⁾ 그는 춘주도로 가는 길에 이인로의 시가 여전히 남아 있으나 훼손될 위기에 있는 것을 보고 수리하여 발문을 적었다.⁴⁹⁾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함순은 이후 계양군수(桂陽郡守)라는 외직으로 밀려나갔다고, 다시 형부낭중(刑部郎中)으로 개경에 복귀하는 도중에 병을 얻어, 개경에 도착한 다음 몇 일 뒤에 병으로 죽었다.⁵⁰⁾

함순은 『모지명』에 따르면 대경(大卿) 민지령(閔志寧)의 딸과 결혼하여 3남 3녀를 두었다.⁵¹⁾ 『과한집』에 따르면 결혼은 익령현위가 되기 전(1182)에 했고, 부인의 말을 잘 들었으며, 1204년(50세)에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살았던 것으로 나온다.⁵²⁾

46) 李仁老, 『破閑集』卷上. 이인로는 함순이 익령현위로 나아간 이후(1182) “20여 년이 지나 자신이 새로 홍도정리(紅桃井里)에 집을 빌렸는데, 나와 집이 붙어있어 아침저녁으로 함께 어울렸다”라고 했으므로, 그 시기는 대략 희종 즉위 이후(1202)다.

47) 李仁老, 『破閑集』卷中.

48) 『咸修墓誌銘』, “遂除權知合門祗候, 遷監察御史. …, 轉考功員外郎, 以殿中侍御史, 出爲春州道廉按使.”

49) 李仁老, 『破閑集』卷上. 이동환의 논문에서는 『과한집』의 이 “양암사(仰巖寺)” 기록을 근거로 이인로가 이담지와 같은 문헌공도 동문으로 보았다.(논문, 23쪽) 하지만 『모지명』에서 함순이 안찰사가 된 것은 1205년(희종1년)은 되어야 하므로, 이인로가 20년 전에 이담지와 함께 글을 읽었다는 것은 1186년(이인로 35세)보다 빠를 수는 없다. 즉 이 기록으로 이인로를 문헌공도로 간주할 수는 없다.

50) 『咸修墓誌銘』, “拜禮部郎中知制誥, 俄出守於桂陽, 以刑部郎中徵還中途疾作, 到京師數日云殂.”

51) 아들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은 함범랑(咸梵郎)이다.(李仁老『破閑集』卷中)

2. 죽림교회 성립시기에 관하여

위의 조사를 통해 함순이 1182년 계양군수로 갈 때 임춘이 전별하는 곳에 참여했고, 또 이인로가 시를 지어 전별을 가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죽림회의 주축 인물들이 함께 활동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것을 죽림회의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함순의 행력에서 이 시기까지 그가 죽림회에에서 이인로·임춘 등 처럼 반체제적 입장을 같이 동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계기를 이를 만한 사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죽림회라는 문인단체가 결성되려면 지금까지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인식되었다. 하나는 7인이 모여야 하고, 또 하나는 단체를 묶을 내면적 동질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동환은 논문에서 죽림회의 구성원들의 교유가 일찍부터 있어왔으나 이들이 어떤 공통된 동기를 가질만한 내면적 성숙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죽림회 결성 기간을 1184년 경(명종14년)으로 결정하였다.⁵³⁾ 필자는 여기에 단체를 만들만한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함순이 1185년에 계양군수를 마치고 돌아와 상서직장동정을 맡게되자 “진신선생 동료들이 서로 글을 올려 추천하여 결국 동궁의 사무직인 첨사부녹사가 되었다”는 사건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문인들이 지금껏 조용히 지내왔던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고려 조정에 요구해서 한 사람의 인사를 옮긴 것이 된다.⁵⁴⁾ 이들은 자신들의 울분을 당대 명망이 높은 함유일의 자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터트린 것이다.

여기에 죽림의 인물들이 포함 되었느냐는 기록이 없지만, 이 시기에 모든 죽림회원들이 개경에 있었다는 것은 많은 논문들이 추론하고 있다.⁵⁵⁾ 그렇

52) 李仁老, 『破閑集』卷上.

53) 李東煥, 『고려죽림교회연구』, 23-24쪽.

54) 고려 사람에서 정부 관료에 압력을 가해서 벼슬을 주도록 한 경우는 『오인정묘지명』에도 보인다. 또 임춘도 『송함순부익령서』에서 “대궐에 나아가 소장을 올려 대궐에서 부르짖어 그대가 동으로 가는 길을 돌리지 못하냐”라고 기록했다.

55) 이동환, 『高麗 竹林高會 研究：傳記의 考察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8. 이종은, 「竹林七賢과 竹高七賢의 대비적 고찰」, 『도교문화연구』4, 1990. 여

다면 진신선생들 속에 죽림회원들의 참여가 상당히 주도적으로 일어났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여론을 움직인 결과 또한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이들이 행동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두려워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일종의 거리감이 생기게 되어 “방약무인(旁若無人)”이라는 명칭과 “죽림”이라는 명칭이 생겨났을 것이다.

함순을 죽림회에 참여하게 만든 사건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함순은 동료 문인들이 여론을 움직여 맡게된 첨사부녹사에 오래 있지 못하고, 곧 공역서승 겸 동문원녹사로 떨어지고, 15년간 환도가 막히게 된다. 거기다 자신이 의지하던 아버지 함유일까지 1185년에 죽었다. 이규보가 함순이 “친협”이라고 하였으니, 청렴과 성실로 살아왔던 함유일의 일생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기존 체제에 별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던 함순이 염세적이고 체제반항적으로 돌아설 만한 충분한 계기가 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죽림회 성립 시기를 7인이 모일 수 있고, 또 각자 내면적 성숙도가 이루어졌고, 또 함께 모일만한 사건도 있었던 1185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함순의 인생에 있어 또 하나의 전환점은 1199년 최충헌의 집에서 시를 지은 이후라고 보인다. 왜냐하면 이 시기 이후로 그는 계속해서 지위가 올랐기 때문이다. 또 함순의 『묘지명』에서 1187년부터 1200년까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도 특징이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그가 죽림고회로 활동하던 시기다. 함순의 묘지명에 이 부분이 없는 것이 죽림회에 대한 함순의 후기 관점이 반영된 것인지 아닌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⁵⁶⁾

운필, 「임춘의 생애에 대한 재검토」, 『한국한시연구』, 1996. 허남옥, 「죽림고회(竹林高會)의 시학(詩學) 연구(研究)」, 『한문고전연구』13, 2006.

56) 고려 당대의 칠현에 관한 외부의 평가는 이세황의 『과한집·서문』을 제외하면, 『고려사』, 이규보 모두 부정적이다. 함순의 행력에서 이 부분이 빠진 것이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3. 함순의 爲人에 대한 당시의 기록

최자는 『보한집·서』에서 역대 대표적 문학가를 열거하면서 그를 임춘의 앞에 두었다.⁵⁷⁾ 그가 인물을 열거한 순서 원칙을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최자는 함순이 “한문(漢文)과 당시(唐詩)는 이들에 의해 성행하게 되었다”라는 평가를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함수묘지명』에서도 “도덕은 이윤과 같았으나 지위는 공경에 이르지 못하고, 문장은 『우서』와 『상서』를 얻었으나, □가 묘당에 퍼지지 않았다.(道可伊同而位不至於公卿, 文得虞商而□不施於廟堂.)”라고 하고,⁵⁸⁾ 또 “시(詩)와 책(策) 모두 순아하여 고품이 있었으니 그의 사람 됨과 같았다”⁵⁹⁾라고 하고, “경연을 베풀 때마다 경의를 인용하면서 고금의 치란을 두루 설명하였는데, 매우 충성스럽고 곧아서, 사뭇 왕신(王臣)의 기풍이 있다”⁶⁰⁾라고 하였다. 즉 묘지명은 함순의 유가적 면모를 힘써 기록하였고, 특히 유가 경서인 『상서』를 특별히 강조했다.⁶¹⁾

하지만 『묘지명』의 그 주인에 대한 평가를 그대로는 믿을 수는 없다.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가는 다른 문헌을 통해 교차검증이 필요하다. 가장 확실한 것은 그의 문학 작품이다. 『함수묘지명』에서 “그 저술이 사뭇 지금 전해진다.”⁶²⁾라고 하고, 최자의 『보한집』에 함순에게 『낙산사십사운(洛山·四十四韻)』이라는 유제시(留題詩)가 있다고 했지만 모두 전해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 다른 문집에 존재하는 그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 그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사람은 함순의 죽림 친구 임춘이

57) 崔滋, 『補閑集·序』.

58) 『墓誌銘集釋』에는 “虞商”을 “呂尙”으로 해석하였다.

59) 『咸修墓誌銘』, “詩與策, 皆淳雅, 有古風, 如其爲人.”

60) 『咸修墓誌銘』: “每侍書筵, 援引經義, 敷陳古今理亂, 蹇有王臣風, 皆稱廊廟器.”

61) 함유일의 이름이 『상서』의 편명인 “咸有一德”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또 그의 형제들의 이름 역시 和와 曦, 즉 義和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62) 『咸修墓誌銘』, “所著述頗傳於時.”

다. 임춘은 함순과 관련된 글로 『송함순부익령서』라는 문장과 『방함자진산거』라는 시를 남겼다.

先生隱市朝	선생께서는 시정에 은둔하시려
負郭構茅舍	성곽을 등지고 초가를 일구었네
為是愛山人	산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나
頻邀好事者	여러 차례 호사자를 불러들였네
飲酒子誠能	음주가 그대 실로 능하고
吟詩我亦頗	시작은 나도 역시 잘한다네
優游數畝園	한가히 수 무의 정원을 거닐어보니
寬於一天下	은 천하보다 넓구나

하지만 시의 첫 구에서 나타나는 “先生”은 함순이 아니라 함유일이다. 왜냐하면 “동쪽 성곽의 벽지(東郭僻遠之地)”를 은 천하보다 넓게 만든 것은 함순이 아니라 바로 함유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함순을 뜻하는 “음주”와 “영시(吟詩)”에 대한 두 구절은 없는 편이 훨씬 문맥을 잘 이어준다.

임춘의 함순에 대한 실질적 평가는 1182년 함순이 익령현위가 되었을 때 지은 『송함순부익령서』는 함순을 가리켜 그가 다른 문인들과 달리 “장수가 되면 장수노릇을 하고, 관리가 되면 관리 노릇을 할 수 있는(為將而將, 為吏而吏)” 관리가 될 천부적 능력이 있는 인물로 평가했다. 문학은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만 관리의 능력을 천부적인 것이라고 추켜 세우는 것에는 그의 당대 문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강렬하게 느껴진다. 임춘은 이어서

돈후하고 박질하여 바탕이 무거우며, 바른 도로 임하며, 효경과 충신이 마음에 있고, 문학의 아름다운 문사가 걸을 수식하니, 일에 베풀어 질 것이 무엇 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⁶³⁾

63) 林椿, 『送咸淳赴翼嶺序』, “敦樸質重, 與直道為任; 孝敬忠信資乎中, 文學辭彩飾乎外, 則其施於事業者, 又可量耶.”

라고 했다. 하지만 임춘의 이러한 지나칠 정도의 찬사는 그를 훨씬 더 멀게 만든다. 그의 글에서 함순을 좀 더 알려주는 부분은 함순이 임춘에게 했던 다음과 같은 말이다.

내가 집을 떠나는 마음을 위로하고, 나의 행역의 수고로움을 거두어 주시오! 내가 그대에게 바라지 않으면 누구에게 바라소? 64)

임춘은 그의 이런 태도를 “아녀자를 따라한다(效兒女態耶)”고 편찬을 주었다. 하지만 어쩌면 이런 부분이 함순의 실제 모습에 더 가깝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이인로의 『파한집』의 내용과 일맥 상통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인로는 『파한집』에서 함순은 부인 민씨를 두려워해서 첩과 소를 아쉬워하며 바꾸는 순박한 사람으로, 65) 조통이 지방관으로 떠날 때 전별을 위해 새벽부터 아침까지 그를 기다려주는 사람으로, 66) 또 20년 전에 자신(이인로)가 쓴 글이 훼손되는 것을 아쉬워하며 시판(詩板)을 설치해서 글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우정어린 사람으로 기록했다. 67) 그들의 이러한 우정의 기록은 1204년까지 이어진다. 이인로는 그와의 우정을 이렇게 기록했다.

나그네의 시름과 객지의 형편이 끓는 물에 눈 녹듯 하였고, 수염과 귀밑머리 사이에 한두 가닥이 다시 검어지는 것 같다. 68)

이처럼 이인로는 함순과의 우정을 정이 넘치게 기록했지만, 『파한집』에 뛰어난 문학가들을 소개할 때 함순을 넣지 않았다. 후대 최자의 『보한집』에는 서문에 비록 함순을 높게 평했지만, 다시 이담지가 임춘의 시구를 몰래 인용

64) 林椿, 『送咸淳赴翼嶺序』, “慰我離曠之懷, 祛我行役之勞! 吾非吾子之望, 將誰望耶?”

65) 李仁老, 『破閑集』卷上.

66) 李仁老, 『破閑集』卷上.

67) 李仁老, 『破閑集』卷上.

68) 李仁老, 『破閑集』, “歷歷然無不在吾目前. 羈愁旅況如湯沃雪, 須鬢間有一莖兩莖還黑者.”

했을 때 함순이 임춘의 시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일화를 넣고,⁶⁹⁾ 『낙산사·사십사운시(洛山四十四韻詩)』에 대해서도 “사실을 기록했기에 글이 번잡하다”라고 하면서 간략하지만 뜻을 다하지 못한 시의 예로 삼았다.⁷⁰⁾

V. 결론

오세재·이인로·임춘·이담지·함순·조통·황보항 7인의 모임을 “죽림”으로 부른 것은 그들의 뛰어난 문학적 역량과, 예법을 뛰어넘는 행동, 그리고 이들이 범인을 뛰어넘는 재주를 갖고도 시대에 의해 폄박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함순은 그의 집안내력과 개인의 행적을 볼 때 계층적으로 이인로·임춘과는 다른 인물이었다. 함순의 집안은 할아버지 함덕후대에 이미 극심하게 몰락하였으며, 아버지 함유일은 글을 할 줄 몰랐다. 따라서 함순은 이인로나 임춘처럼 전통문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그는 고려의 구문신귀족이 아니었고, 집안이 무신들에 의해 무너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의 아버지 함유일은 오직 근면과 절약으로 난세를 헤쳐나가 집안을 일으켰다.

1185년은 함순이나 죽림고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로 생각된다. 이 시기 함순의 주변 문인들은 함순의 낮은 지위를 받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자신의 불만을 함순에게 투영했을 것이다. 그들은 여론을 형성하여 정부를 압박했고, 그 운동이 초기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문인들이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죽림과 다른 문인들을 구분시켰다. 그러나 이 운동의 결과는 좋지 않았다. 함순은 첨사부주부에서 다시 친

69) 崔滋, 『補閑集』卷中.

70) 崔滋, 『補閑集』卷上, “凡留題, 以辭簡義盡爲佳, 不必誇多耀富, …, 咸郎中子真, 題「洛山四十四韻」, …, 皆紀事實, 辭不得不繁.”

혐이라는 이유로 밀려났고, 함순은 아버지의 죽음도 같은 해에 맞이해야 했다. 아버지의 죽음과 친혐으로 밀려난 순서를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아버지의 청렴이라는 명예를 손상시켰다. 이 시기부터 1199년 최충현으로 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1200년 첨사부 주부(詹事府注簿)가 되기 전까지의 15-16년의 시기는 함순에 있어 견디기 힘든 고달픈의 시간이었음은 분명해 보이고, 그가 충분히 죽림고회의 일원으로 활동한 동력을 마련해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그는 이인로·임춘과는 달리 46세 이후 최충현의 막하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비교적 높은 지위에 까지 올랐다. 다만 죽림회 활동이 있던 1185년부터 1200년까지의 16년의 시간에 대해 함순의 『묘지명』이 침묵하고 있는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함순의 인간됨에 대해서 임춘의 글과 『묘지명』은 그를 유학적 사상을 가진 대단한 인물로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에 대한 찬사는 그의 “회재 불우”한 죽림의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그의 실제 모습을 가리는 작용을 했다. 그는 결코 “오세(傲世)”하는 성격격이 아니었다. 이 점은 『과한집』에 생생하게 전한다.

※ 이 논문은 2019년 1월 6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2월 12일부터 3월 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3월 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李仁老, 『破閑集』

林 椿, 『西河集』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崔 滋, 『補閑集』

『CD-ROM 原文·譯注 高麗墓誌銘集成』

『高麗史』

이동환, 「高麗 竹林高會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8.

이종은, 「竹林七賢과 竹高七賢의 대비적 고찰」, 『도교문화연구』4, 1990.

여운필, 「임춘의 생애에 대한 재검토」, 『韓國漢詩研究』4, 1996.

허남욱, 「죽림고회(竹林高會)의 시학(詩學) 연구(研究)」, 『한문고전연구』13, 2006.

A Study on the Life of Ham Sun

Seo, Joo-young

This paper examines the life of Ham Sun and his evaluation of his personality in the study of the existing Koryo bamboo forest clan. Ham Sun was a person of Koryo Jongjong and Hyeongjong period in Koryo Dynasty, but we can not know about his biography because of lack of data. Therefore, Ham sun has been recognized as a person with the same order and tendency as Lee In-Ro · Yim Chun.

However, this grave name of the Goryeo Dynasty, known as the "Ham Su`s memorial inscription", was actually the cemetery of Ham sun. Through these data, we could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Ham sun in previous studies.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nts of "Ham Su`s memorial inscription" by comparing it with the records of Lee In - ro 's collection of works, and Im chun' s collection of works; and shows that Hamshun was a different class from Lee In - ro. This paper focuses on the outline of Ham sun 's character and literature in the literature.

key words : Ham Sun, Goryeo the Bamboo Grove, Seven Sages, Yi In-Ro, Yim Chun.